테마칼럼 | 여성세계 | 정치프리즘 | 정세인 눈 | 문화 향기

호남은 '비자금'이 아니다

김 행
〈전 중앙일보 전문기자·
현(주)넥서스 투자 고문〉

"여권이 호남민심의 변화, 그리고 그들의 열정과 요구, 시대정신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2007년 대선은 필패다. 호남은 급할 때 언제든 빼 쓸 수 있는 비자금이 아니다."

상상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유력후보인 이명박 전시장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20%를 넘어 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 역시 10%를 넘었다. 합하면 30%를 훌쩍 웃돈다. 역대 선거에서 反한나라당 지지율이 90% 이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건 분명 이변이다. 어찌 이런 일이?

여권에 유력주자가 없어서 생긴 일시적 현상이라는 주장도 꽤 설득력이 있긴 하다. 막상 여권 후보가 정해지면 지지율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물론, 그럴지도 모른다. 고 건 전시장이든, 정동영 전의장이든, 제3의 후보든 여권의 유일후보가 확정되는 순간, 호남은 돌아 설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엔 뭔가 시원치 않은 구석이 있다. 과거 호남을 기반으로 탄생했던 정권이 아무리 죽을 썼다 한들, 영남정권에 표를 주진 않았었다.

이명박·박근혜의 경쟁력

그래선가. 제법 그럴듯한 음모설도 퍼지고 있다. 노사모가 이명박을 한나라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움직인 결과라는 것이다. 무슨 말인고 하면, 이명박이 후보가 되면 본선의 검증과정에서 무참하게 깨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 여권의 재집권을 위해 필사적으로 띄우는 중이라는 설이다. 박근혜보다는 공략하기 쉽다는 것이다. 황당한 얘기다. 현재 노무현대통령의 지지율은 바닥이다. 상당 수 골수 노사모들까지 등을 돌렸다. 이런 판에 설령 노사모라고 한들 누가 총대를 맨단 말인가.

결국 결론은 한가지다. 이명박이나 박근혜라는 상품이 호남에서도 경쟁력 있다는 얘기다. 이쯤에서 2007년 대선의 의미를 분명히 집어볼 필요가 있다. 역대 모든 대선은 '시대정신의 반영'이었다. 김영삼 정권의 탄생에는 노태우 정권까지 이어진 '군정종식'이라는 대의명분이, 김대중 정권 때는 '귀족정치'의 표상인 이회창 후보에 반하는 '핍박받는 민중과 민주주의의 완결' 이라는 시대정신이 있었다. 노무현 정권 역시 이회창의 '보수,수구, 꼴통'이라는 '낡은 구태정치'에 대비되는 '새로운 정치'라는 희망을 담고 탄생했었다.

그렇다면 2007년 대선의 시대정신과 전선(戰線)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하고 무능한 좌파정권에 대한 국민적 퇴출명령'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라고 불리는 범세계적인 물결에서 경쟁력 있는 정치질서, 경제질서를 새롭게 구축해 세계 초일류 국가로 거듭나자는 것이다. 그러자면 차기 대통령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의 소유자여야만 한다. 이젠 운동권출신, 좌파적 이념가로는 곤란하다. 국민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 같은 민심의 도도한 흐름이 대기업 CEO 출신인 이명박 전시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또 박근혜에게도 플러스가 됐다. 적어도 현재까진 그렇다.

'07 대선 필패하지 않으려면…

호남에서 이명박과 박근혜의 지지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호남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호남은 과거의 민주 대 반민주, 호남 대 영남, 진보 대 보수라는 이분법적 사고나 맹목적인 지역감정을 뛰어 넘기 시작했다. 그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가치에 눈을 뜬 것이다. 이젠 여권이 변할 차례다. 여권이 호남민심의 변화, 그리고 그들의 열정과 요구, 시대정신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2007년 대선은 필패다. 호남은 급할 때 언제든 빼 쓸 수 있는 비자금이 아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말했다. "내부의 적과 싸우는 데만 급급하고 외부의 적을 보지 못하는 민족과 국가는 망한다"고. 지금 열린우리당은 통합신당이냐 당 사수냐를 두고 싸울 때가 아니다. 민주당이 정계개편의 중심에 서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도 꼴 사납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길 권한다. 그러면 이길 수도 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범 희 승

의료산업이 일자리 만들어 낸다

미국의 메이요 클리닉은 병원평가에서 미국 2위를 지키고 있는 명문 병원이지만, 인구 5만의 미네소타 주 로체스터 시에 자리잡고 있다. 미국 병원평가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병원을 보면 동북부에 존스홉킨스 대학병원, 하버드 대학병원, 중부에 메이요 클리닉, 클리블랜드 클리닉, 남부에 휴스턴 메디컬센터, 서부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병원, 스탠포드 대학병원 등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DC와 뉴욕에는 5위 안에 드는 병원이 오히려 없다. 일본도 국립암센터는 동경에 있지만, 국립순환기센터는 오사카에 있고, 국립척추손상센터는 후쿠오카에 있다. 일본에는 18개의 암센터가 각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데, 가장 비싼 장비인 양성자치료기는 동경 국립암센터가 아니라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시즈오카 암센터에 설치되어 있다. 중국에서 가장 큰 암센터는 베이징이 아니라 광저우에 있다.

각 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수준과 정도는 꼭 그 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국민소득을 보이는 아시아 국가와 유럽 국가를 비교해 보면 유럽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고급 의료서비스가 국민들에게 더 폭넓게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외국 산업체가 어떤 지역에 들어가려고 장소를 물색할 때 꼭 찾아보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믿을만한 의료기관이다. 자기 직원에게 병이 생겼을 때 다른 지역까지 후송해야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 지역에 공장이나 회사를 세울 수 있겠는가?

새로운 약을 개발했을 때 제약회사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영국 북부의 스코틀랜드 지방이다. 대학병원과 연구소들이 클러스터를 만들고 최고의 임상시험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의료산업을 국가 중추산업으로 선정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미국에서 최근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 낸 산업이 의료산업이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창출산업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세계적으로 의료산업이 활발한 곳에는 예외없이 먼저 좋은 병원이 자리잡고 있었다. 스코틀랜드에는 노벨상을 다수 배출한 글라스고우 대학병원, 싱가포르에는 샴쌍둥이 수술로 유명한 싱가포르종합병원, 미국의 보스턴 의료산업단지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하버드 대학병원이 있다.

얼마 전에 화순읍에서는 녹십자 백신공장이 기공식을 가졌다. 인근 부지에는 전라남도 생물산업 연구센터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은 국내 유일의 읍 소재 대학병원이지만 2005년 의료기관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하였고, 전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다. 우리 지역에 자연스럽게 의료산업의 싹이 돋아나고 있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의료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첨단의료산업단지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라고 한다. 우리 지역에 첨단의료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모두 힘을 모을 때이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진료처장·교수〉

기 고

홍 기 월

충장로 살리기 시민 뜨거운 관심 필요

'호남상권 1번지'로 불렸던 광주 충장로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데 대해 광주 동구 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많은 광주·전남 시도민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광주엔 상무신도심등 몇몇 신흥 개발지역이 발전하고 있지만 광주 최대 번화가이자 꿈과 낭만이 넘쳐흐르던 충장로의 옛명성에는 미치지 못하고있다. 70년대와 80년대 광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광주 하면 충장로, 충장로 하면 광주'라는 등식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충장로를 되살리자는 것은 결코 충장로 상인들의 장삿속을 채워주자는 것이 아니다. 광주에 확실한 중심 상권을 살려 지역경제 전체에 활력을 주고, 여론과 유행을 꽃피우게 하며, 시민에게 낭만과 휴식을 주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광주 동구와 충장로 상인들이 합심해 매년 충장로 축제를 성대하게 열고있는 것은 이같은 노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 광주시와 동구는 본격적으로 '충장로 특화 거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2008년까지 75억원을 들여 충장로를 '광주 제1쇼핑의 거리'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이 목표다.

우선 충장로를 연인·친구들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 아스팔트 대신 화강석을 깔고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운치와 낭만이 깃든 거리로 만들게 된다. 또한 문화의 수도에 걸맞게 빛고을 광주의 열정과 진취적 기상을 표현한 각종 거리 포인트(고싸움 등)를 두고, 노벨평화상 수상자 및 인기 연예인 등의 핸드 프린팅·광주비엔날레 상징물·충장로 로고 등이 길거리 황금주물 동판에 새겨짐은 물론, 길바닥에는 씨 뿌림 모양의 고휘도 지중 LED가 설치돼 환상적인 조명이 연출된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광주우체국 앞 만남의 광장에는 휴식공간·안내판·가림벽 등도 마련될 계획이다.

금남로 일대도 크게 바뀐다. 2016년까지 2천600억원을 투입, 금남로 1~5가 1천600m 구간을 '걷고 싶고 찾고 싶은 광주의 랜드마크 거리'로 만든다. 차도폭을 줄여 보행자 위주 공간으로 조성한 뒤 조각물과 노천카페, 지하 광장, 야간경관 등의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도심공원 보행로(문화전당~광주공원), 교육·문화중심 보행로(지산유원지~예술의 거리), 음식·쇼핑중심 보행로(남광주역~천변)를 조성하여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광주 구도심이 리모델링이 될 것이다.

충장로가 살아야 광주가 산다. '광주의 종갓집 동구'가 70~80년대 옛 영광을 되찾도록 우리 광주시민 모두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한다.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추진위원회 위원·광주동구의회의원〉

학생들 무조건적 반일감정 심각, 학교서 제대로 알려줘야

아르바이트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대학생이다.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의 역사의식에 놀랄뿐이다.

초등학생들의 일본에 대한 생각이 거의 맹목적일 정도로 막무가내식이라는 점이다. 한국사를 가르치다 보면 나는 민족주의자가 되며, 반일을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미리 "일본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는 것이지, 선생님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란다"라는 말을 해주곤 한다.

기우일런지 몰라도 내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경우, 막무가내로 일본을 싫어하며, 미워하는 식의 말을 할 때가 있다. 일본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 채,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학생들에게 일본이 잘못한 점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은 어느새 일본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물론 우리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막무가내식으로 다른 나라를 미워하는 감정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과의 의견 대립이 심한 부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어린이들도 관심을 보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어른들이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교육은 학교에서의 몫이 아닌가 싶다.

▲이조아·광주시 광산구 송치동

운전중 다른 행동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줘서야

며칠전 시내에서 신호대기를 하던중 직진신호가 떨어졌는데 앞차가 출발을 안했다. 보통 적색신호에서 녹색신호로 바뀌면 그 1~2초간의 짧은 순간을 못참아 뒤에서 경적을 울려대는 운전자 중 한 명이 되고 싶지 않아 기다리며 문득 쳐다봤는데, 앞차 운전자가 보고있던 신문을 접으며 뒤늦게 출발할려고 법석을 떠는 모습이 뒷 유리를 통해 선명하게 보였다. 순간 분통이 터지고 기가 막혔다.

이미 그 앞차들은 신호를 받아 전부 빠져나갔고, 그 차가 헤매는 사이 다시 적색신호로 바뀌어 뒤따르던 차량들은 모두 출발을 못하고 멈춰서야 했다. 너무나 화가 났다.

사실 이런 경우를 이번만 겪은건 아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만 금지된게 아니다. 핸들에서 양손을 떼고 버젓이 신문을 보는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바쁜 시간을 쪼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홍명호·광주시 서구 풍암동

사 설

시내버스 '개편' 시민불편 해소책 시급하다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첫 날인 21일 노선 개편에 대한 정보부족과 불규칙한 배차 간격 등으로 크고 작은 혼선이 빚어지면서 시민들이 하루종일 큰 불편을 겪었다. 준공영제 시행 초기에는 다소간의 혼선과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시민들이 체감한 불편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우선 노선 개편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승객들이 우왕좌왕하는 등 크게 당황했다. 특히 장·노년층 상당수는 환승 개념조차 몰라 아예 어디에서 몇 번 버스를 갈아 타야하는 지 혼선을 빚는 등 적잖은 애를 먹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들쭉날쭉한 배차간격도 문제였다. 배차간격이 10분 이내인 급행 간선버스와 10~20분대인 간선버스 가운데 일부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등굣길 학생이나 출근 시민들의 불만을 샀다. 배차간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환승 체제로 이뤄진 이번 노선 개편은 성공할 수 없다.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은 오히려 시간지체와 혼란 등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동구 금남로 등 시내 중심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너무 적은 것도 개선해야할 점이다. 이와 함께 준공영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부 버스기사의 여전한 불친절도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 요금 인상과 혈세까지 보조하면서 서비스는 종전과 같다면 이번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한다.

물론 광주시의 말대로 새 노선과 시스템에 익숙해지면 기존보다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시행 첫날 나타난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준공영제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시는 시민 협조만 당부할 것이 아니라 민원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물 공포' 키운 수질검사 비리 엄벌해야

지하수개발업자와 검사기관, 공무원이 결탁해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해왔다고 한다. 엉터리 수질검사로 인해 마시기에 부적합한 지하수가 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 가정집 등 1천400여곳의 식수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부끄럽고 한심하다.

검찰이 밝힌 지하수 수질검사 실태는 부실투성이에 구조적 비리로 얼룩져 있다. 검사기관은 개발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결과를 조작했다. 검사도 하지 않고 수치를 적어 넣는가 하면 시료를 수돗물로 바꾸기도 했다. 민간 검사기관은 물론 대학부설연구소와 공공기관도 가담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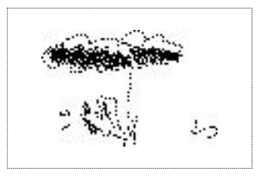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은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채취 현장에서 시료를 봉인해야 하는데도 봉인지를 통째로 업자에게 건네 주었다고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한 간부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8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검사기관-업체-공무원은 인체에 해로운 질산성 질소가 허용기준치의 17배를 초과한 물까지 '정상'으로 판정할 만큼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 없었다. 질산성 질소가 유아의 체내에 흡수되면 피부색이 청색으로 변하는 청색증과 빈혈, 성장발육 부진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국민들은 엉터리 수질검사를 믿고 오염된 지하수를 마셔온 것이다. 수질 조작은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집중됐지만 광주와 전남도 예외는 아니다. 검찰이 발표한 조작된 오염 지하수에는 광주 2곳, 전남 13곳도 포함돼 있다.

국민들이 물까지 안심하고 마시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수치다. 걸핏하면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고 불량식품이 유통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물까지 마음놓고 먹을 수 없어서야 되겠는가. 정부는 지하수와 수돗물 등 물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 '물 공포'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四字成語



사자성어(四字成語)는 대부분 중국의 역사·고전·신화·전설 등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270여 가지로, 출처는 시가((詩歌) 등 70권의 문헌이며 관련 인물은 200명 정도다. 교훈·비유·상징어로서의 기능을 하며, 시대적 상황이나 인간의 내면심리 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데 인용된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이 사자성어를 자신들만의 의사표현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현대판 사자성어'는 그 풍자나 유머감각이 기성세대를 포복절도(抱腹絶倒)하게 만든다.

'苦盡甘來: 고생을 진탕하고 나면 감기몸살이 온다' '以心傳心: 이순자 마음이 전두환 마음' '全羅南道: 홀딱 벗은 남자의 그림' '三顧草廬: 쓰리고를 할 때는 초단을 조심하라' '坐不安席: 좌우지간 불고기는 안심을 석쇠에 구워야 제 맛' '群鷄一鶴: 군대에서는 계급이 일단 학력보다 우선이다'…

10대들이 즐겨 찾는 사이트(www.i-doo.net)는 '아이두 사전'이라는 코너를 마련, 언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곳에서 '無賃乘車'는 '시험기간에 다른 학우들의 필기를 베껴 공부하는 것'이며, '小貪大失'은 '시험 전날 예체능 위주로 공부했다가 주요 과목을 떡친 경우'를 일컫는다. '租稅抵抗'은 '설날이나 친척이 방문했을 때의 특별수입을 어머니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하는 일련의 행위'라는 뜻이다.

대학교수들이 2006년 한국사회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밀운불우'(密雲不雨)를 꼽았다. '구름은 빽빽하나 비는 오지 않는 상태'라는 말로, "순탄하게 풀리지 않는 한국의 정치·경제·동북아 정세가 선정 배경이 됐다"고 한다. 각계각층에 내재된 불만이 폭발 직전의 임계점(臨界點, critical point)에 달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만약,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올 한해를 아우르는 단어를 택하라면 어떤 사자성어가 나올까?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정 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